

안녕하십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을미년 청양(靑羊)의 해가 시작하면서, 무리지어 살아도 다툼이 없는 양처럼 서로 이해하고 평화로운 삶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합니다. 온순하고 화합함으로 갖은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선조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년보다 다소 설이 늦어 입춘도 지나면서 봄 애기가 간간히 들리기도 합니다. 시샘하는 추위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본래 내 안에 가진 온기와 자연의 생명력 또한 역동하는 삶으로 한걸음 더 내딛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니, 이에 더하여 『해 뜨니 낮이요, 달 뜨니 밤이로다.』를 통해 선지식의 귀중한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시는 것도 의미있는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진실로 나를 찾아보는 마음가짐으로써 소중한 도반(道伴)과 이웃을 환하게 반기며, 어느 해 보다 향기로운 봄소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는 어떠한 달콤한 음료보다도 물이 최고일 것입니다. 선지식 아홉 분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물과 같고 공기와 같지만, 사실이 그렇듯 생명의 근원이면서 삶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한동안 물질에 너무 기대어 살아온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며, 한결같이 참된 나, 참된 삶을 통한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차근차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책으로 진실한 본래의 모습을 편안하게 살피는 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삶의 여정(旅程)에서 자신감과 여유로운 마음의 풍요를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환한 마음의 빛으로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로 성큼 다가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정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